

“운림산방, 세계유산 손색없다”



‘200년 화맥’을 이어온 진도 운림산방 전경.

진도 운림산방(雲林山房·사진)은 한국 남화의 고향이자 뿌리다. 조선 후기 남화의 대가인 소치 허련이 머물면서 그림을 그렸던 곳으로 그의 후손들이 200년 화맥을 이어온 남종화의 산실이다. 진도에서 태어난 소치는 해남 녹우당에서 화첩을 보며 그림을 익혔다. 초의 선사의 소개로 서울로 올라간 소치는 추사 김정희에게 그림을 배우면서 독자적인 화풍을 만들어간다. 이후 김정희가 타계한 후 그는 고향으로 내려와 운림산방을 만들어 한국 남화의 맥을 형성했다.



임전 허문 작 ‘강무(江霧)’

유네스코 등재 위한 허문 ‘붓질오십년전’·‘4代전’

서울 인사동 아라아트센터 8~21일...도록도 펴내

수묵을 가지고 담대하면서도 자유로운 형식으로 선비의 마음을 담아 그린 그의 화풍과 전통은 200여 년을 이어오면서 5대에 걸쳐 배출된 9인(5대 4명)의 화가들에 의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의재 허백련도 이곳에서 그림을 익히기도 했다. 이로 인해 운림산방은 남도에서 가장 오래된 미술관으로, 살아있는 미술관이자 남화의 성지로 불리기도 한다.

특히 주위를 둘러싼 첨찰산 주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피어오르는 안개가 구름 숲을 이룬 모습을 보고 이를 지은 운림산방이라는 이름처럼 역사적 가치와 함께 뛰어난 자연경관이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곳이기도 하다. ‘200년 화맥’ 운림산방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전시가 열린다. 운림산방의 4대 주인인 임전(林田) 허문(74) 선생이 오는 8일부터 21일까지 14일간 서울 인사동 아라아트센터 전시장에서 운림산방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호소하는 전시회를 연다.

이번 전시는 임전 선생의 회고적인 ‘붓질오십년전’전과 함께 선대의 작품을 선보이는 ‘운림산방 4대’전으로 구성됐

다. ‘이제는 유네스코’라는 부제를 붙인 이번 전시는 4대에 걸쳐 5인의 화가를 배출한 운림산방의 경이로움을 다시 한 번 조명하는 자리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의 당위성을 부각시키는 전시다.

전시와 함께 임전은 운림산방 일가의 작품 세계를 정리한 도록 ‘붓질오십년전’(320페이지, 300부 한정)을 펴냈다.

이 도록에는 임전이 24세 때 그린 소장작품 28점을 비롯해 임전의 최근 작품 37점, 그리고 그간의 삶을 쓴 미나지 서전 성격의 글이 함께 실렸다. ‘안개 산수’라는 임전의 독특한 작품세계를 한 눈에 만날 수 있다. 그의 안개는 끊임없이 살아 움직이면서 또 피어나는 듯한 느낌을 선사한다.

또 뒷부분에는 ‘운림산방을 아십니까?’를 주제로 1대인 소치 허련(1808~1893)의 작품 20점, 2대인 허련의 3남 미산 허행(1861~1938)의 작품 19점, 3대인 남농 허건(1908~1987)의 작품 21

점과 임인(1917~1942)의 작품 19점 등 운림산방 4대 5인의 작품142점이 수록됐다.

임전 선생은 “이번 전시는 사실상 내 그림인생을 마감하는 전시로, 개인 회고전을 통해 운림산방을 다시 정리하고 선대들의 장대한 화맥을 보여주자는 의미가 크다”며 “운림산방은 진도의 것이자, 남도의 것이고, 한국의 것이지만 세계의 것이기도 하기에 이번 전시를 통해 운림산방이 유네스코로 가는 기점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0년 동안 5대에 걸쳐 9인의 화가를 배출한 전통은 유네스코 등재 요건이 된다”며 “운림산방이 3대째 만 두만 만들어도 요란 범석을 떠는 일본에 있었다면 벌써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은 물론 세계적인 미술관으로 거듭났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061-285-4611, 02-733-1981.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광주 ‘인터내셔널 발레컴퍼니’ 전국무용제 은상

아버지의 슬픈 자화상

‘휴먼 플라나리아’ 무대에

인터내셔널 발레컴퍼니가 제23회 전국무용제에서 은상을 수상했다.

지난 5일 인천문화예술포럼 대공연장에서 막을 내린 이번 무용제에서 광주 지역을 대표해 참가한 인터내셔널 발레컴퍼니는 ‘휴먼 플라나리아’〈사진〉를 무대에 올렸다. 정정은(광주시립무용단 차석) 단장이 안무를 맡은 ‘휴먼 플라나리아’는 다세포분열을 통해 자신의 몸을 쪼개고 쪼개 다시 살아나는 편형동물 플라나리아처럼 무수한 희생을 감수하는 아버지의 슬픈 자화상을 그린 작품이다.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연속 대통령상을 받았던 광주무용협회(회장 김미숙)는 이번 수상으로 지금까지 대통령상 9차례, 금상 4차례, 은상 6차례를 수상하는 등 전국 무용계에서 독보적



인 성과를 내고 있다.

또 전남 대표로 참여한 장경인 무용단도 은상을 수상했으며 올해 대통령상은 경기도에서 참가한 김선정 무용단에게 돌아갔다.

한편 5일 열린 시상식에서는 ‘휴먼 플라나리아’ 공연에 함께했던 무대예술가

고(故) 이대업씨가 공로상을 받았다.

임지형&광주현대무용단, 김미숙하나 무용단, 서영무용단, 로열발레단 등 전국 무용제 대통령상 수상팀과 함께 오랫동안 호흡을 맞추며 광주 무용을 널리 알리는 데 힘을 보탤던 이씨는 지난 1일 지방으로 세상을 떠났다. /김미숙기자 mekim@



‘풍경 속으로-대숲’

지친 일상 위로를

담양 대담미술관 14일까지 박상화전

전남문화재단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2014 대담미술관 레지던시 프로그램 다섯 번째 결과발표전인 미디어아티스트 박상화씨의 ‘풍경 속으로-대숲’전이 오는 14일까지 열린다.

박씨의 이번 전시는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허전한 마음의 여백을 채워줄 대자연의 변화무쌍한 풍경들과의 만남을 주제로 하는 전시이다.

대자연 안에서 갈등하고 적응하며 동화되어 가는 인생의 여정을 그려낸 작품들이 선보이고 있다. 작가가 가상으로 쓰는 영상작품 속 대나무 숲, 소나무 숲, 관방제림의 거목들, 메타세쿼이아 숲 사이의 길들은 컴퓨터로 인간이 존재하고 살아가는 삶의 가치에 대한 사유와 성찰의 시공간이 된다.

박씨 작품의 특징은 관람객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돋보인다는 점이다. 작가는 직접 고안해낸 천 재질의 ‘샤스크린’을 여러겹으로 설치한 뒤에 작품을 비춘다. 관람객들은 작품 속을 오가면서 오감을 통해 작품을 느끼게 된다. 문의 061-381-0082.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사회 초년생 응원

금호갤러리 내일부터 성혜림전

지난해 금호갤러리 유·스퀘어청년작가 전시공모를 통해 선정된 성혜림씨의 개인전이 8일부터 14일까지 유·스퀘어문화관 금호갤러리 3관에서 개최된다. 조선대 미술학부를 졸업한 성씨의 첫 개인전으로 ‘생각하는 아이’를 주제로 열린다.

작가는 미술대학 졸업한 후 느꼈던 사회생활에 대한 개인적 경험과 생각을 바탕으로 사회로 진입하는 젊은 세대의 단면을 나타낸다.

성씨는 사회라는 현실 속에 직면한 우리들의 모습을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이야기한다. 특히 작품 속 아이들은 대부분 눈을 지그시 감고 있다. 사회 생활 초년생들의 고민과 애환을 담고 있어서다. 여행 가방이나 헤드폰, 스마트폰 등 이미지들은 현대인들을 대변한다.

“아이의 표정을 통해 사회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의 고민을 담았다”라는 것이 작가의 말이다.

성씨는 광주시립미술관 창작스튜디오, 무등현대미술관 레지던시 입주작가로 활동했다. 문의 062-360-8436.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안 힘든 척 다 괜찮은 척’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게임동 홀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단열복합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시공과 과정: 1. 시공전 / 2. 단열베이스카펫시공 / 3. 단열베이스카펫 / 트라이슈머시트시공 / 4. 트라이슈머 마감시공 / 5. 옥상시공후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아트패션시트® 곰팡이 결로 단열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뜻~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난방비 절감효과 (20~30%)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물디자인으로 바뀌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의 특허공법!!

배란다 시공전 시공후

본사: 전속모델 밸런스 이영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

광주전남대리점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대리점 T.(061) 284-0485
여수대리점 T.(061) 683-0485
순천대리점 T.(061) 726-0482
광양대리점 T.(061) 795-0485